

# Head of Family Federation, Hak Ja Han's speeches in Japan attracted 40,000 people despite the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typhoon

Newsis

October 27, 2013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Unification Church) held 'True Parents of Heaven and Earth Japan Speaking Tour Welcoming Rally at 10 AM on the 27th at Cheongshim Peace World Center in Cheongpyeong.

Unification Church founded in Korea on May 1st, 1954 decided that Japan would be its overseas mission country on July 15th, 1958 and sent missionaries over. And on October 2nd, 1959, it had its first service under the name of the Tokyo Church. President Han's Japan Speaking Tour rallies were events commemorating this and the first official event in Japan by President Han, who has led Unification Church after the death of Founder, Sun Myung Moon (1920-2012) last February.

Dr. Han emphasized the harmony between Korea and Japan by saying, "Korea was given the calling of becoming the Father Nation. But the blessing is given only when we fulfill Heaven's responsibility. Korea and Japan need to become one and achieve world peace beyond Asia. Let's bring forward the day of victory before 2020."

## Segye Ilbo



천지인합부모님 일본순회강연 승리 환영대회. 27일 오후 10시 30분경 천지인합부모님 일본순회강연 승리 환영대회. 27일 오후 10시 30분경 천지인합부모님 일본순회강연 승리 환영대회. 27일 오후 10시 30분경 천지인합부모님 일본순회강연 승리 환영대회.

### “행복한 세상 만드는 일에 앞장서자”

#### 가정연합 한학자 총재 日 순회강연 승리 환영대회서 강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은 27일 오후 10시 30분경 천지인합부모님 일본순회강연 승리 환영대회를 열었다. 최근 한학자 총재가 일본 순회강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가정연합 회원 2천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천주교천주교본부에서 활동하며 수업을 받고 있는 남미르리키강화국 기독교 직사모 이슬람교 영적지도자 이원 등 40명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 총재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6여일 동안 가정연합 일본성교 천주교본부에 일본 5개 주요 도시에서 순회강연을 하고 “일본은 예레니 나중에서 세계인들을 사랑으로 품어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내리신 큰 축복”이라고 강조해 3만여 일본 천주교에 깊은 인상을 심

었다.

이날 행사는 유엔식기정연합 한국위원의 지원으로 시작했으며, 기도·특별보고·유엔순회영상상영·축가·교사제 헌장·영향

“나, 부자의 나라 되라고 축복

한국도 인류 구원에 예리해야”

“통일교 표서 길이 뿌려” 평가도

식기정연합(UN)가 세계의 평화 유망시 가정연합 한국위원에 대한 한 총재의 사랑할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 총재는 강연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나라를 구원해 드려야 할 ‘제국의 이스타브’로 천하의 영광을 받

았다고 강조했다.

“저는 일본에 가서 일본이 부자의 나라가 되라고 축복하고 들어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번이 인복을 쌓았을 뿐이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선다면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으며 영광한 세계에서도 그 상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순회한 가정연합 일본순회장은 특별보고를 통해 한 총재의 일본순회 성과와 의미 등을 소개했다. 순회장은 “한 총재님께서 호기심이 태워 된 첫 발음이 ‘일본에 올 때는 언제나 사립 천주교 본당에 오는 심할’이라고 예쁜 부모의 마음을 통해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보았다”며 “많은 일본인들이 회례종교가 정착하기를 희망. 일본 본당에서 통일교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환영대회는 세계 14개국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가정-정성수 종교전담기자